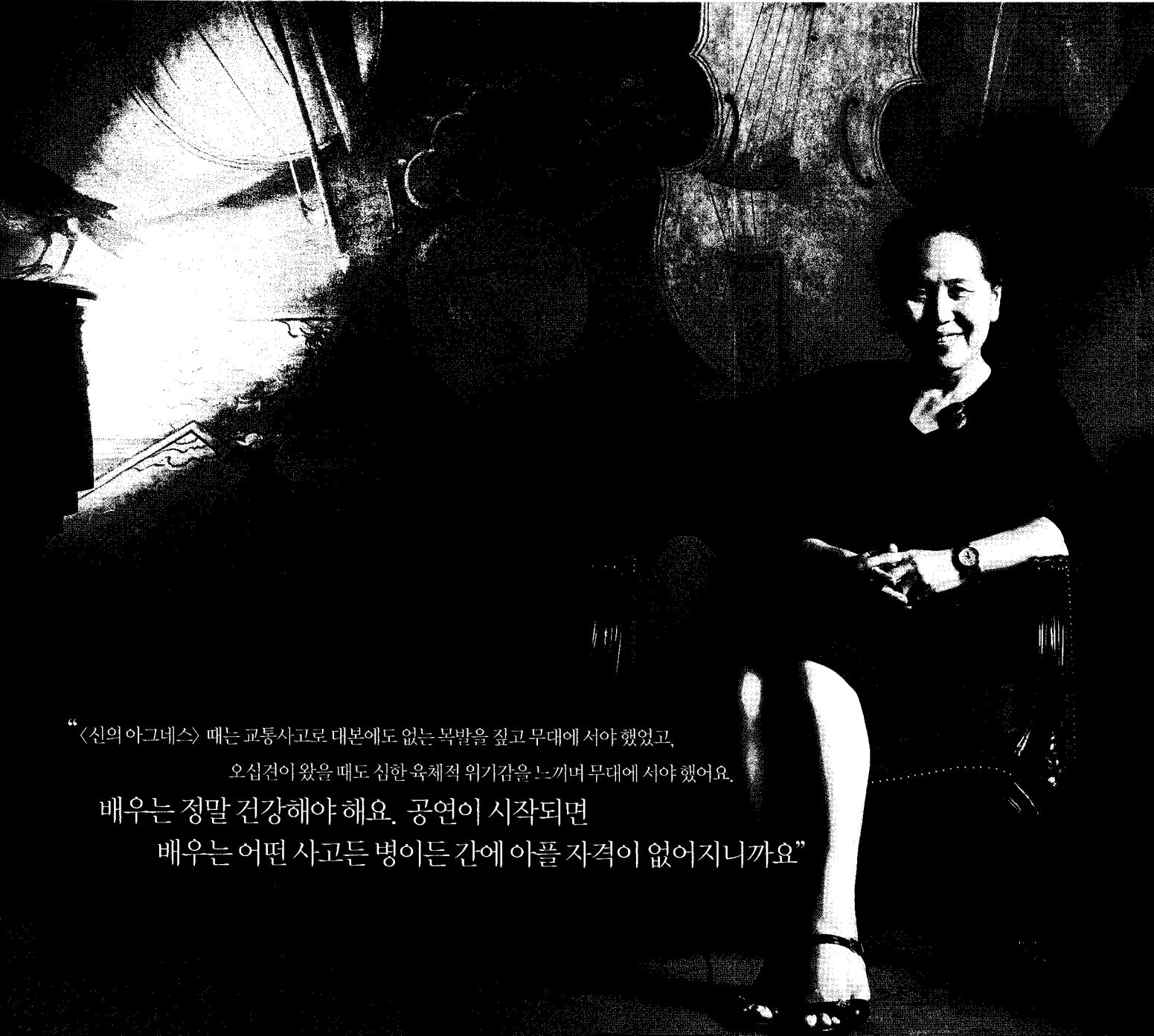


박정자가 뿌리는 빛살

누가 박정자라는 무대의 압권(壓卷)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박정자는 자신이 맡은 역의 형상화를 통해 관객을 설득해내는 힘이 유독 세 차다. 하지만 그 막강한 카리스마 이면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한 내성이 깃들어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기' 로 내몰며 더 강인해지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꽃과 낭만을 사랑하는 '감성' 가득한 사람이다. 원숙한 여배우 박정자의 건강한 삶을 들여다본다.

☞ 양효신(〈Noblian〉 피처기자) 사진 박성일



“〈신의 아그네스〉 때는 교통사고로 대본에도 없는 복발을 짚고 무대에 서야 했었고,
오십권이 왔을 때도 심한 육체적 위기감을 느끼며 무대에 서야 했어요.
배우는 정말 건강해야 해요. 공연이 시작되면
배우는 어떤 사고든 병이든 간에 아플 자격이 없어지니까요”



여전히 꽃과 낭만을 사랑하는
'감성' 가득한 사람



마음이 메마르지 않은 건강한 삶에 대한 동경

얼마 전 병상의 지인을 문병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연극배우 박정자를 본 적이 있다. 그녀는 마침 누워 있는 친구를 위해 며칠을 두고 골랐다는 서너 편의 시를 낭독해 주고 있었다. 그녀의 개성적이고 낭만적인 목소리가 시 낭송으로 이어지는 동안 한쪽으로 물러서서 <페드라>의 강렬한 사랑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11월의 왈츠> 속 멜로적인 독백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멋들어진 병문안 퍼포먼스가 끝나는 순간 그녀가 매우 아름답고 건강한 배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연극배우 박정자라는 이름은 무대에서 여전히 주목받는 타이틀이다.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노련함과 젊음을 초월한 열정, 순진무구한 활기로 무대를 장식해왔다. 배우에게 서투름이란 용서되지 않는다. 동시에 진부함과 고루함도 치명적인 악덕이 된다. 배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이 노련함과 신선함, 연륜과 젊음이 함께 요구되는 점이야말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에게는 이런 상반된 요소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정자라는 배우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이 노련함과 젊음을 함께 지녔기 때문이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칠순을 넘겼고 연극 무대에 선지도 50년이 됐다. 물론 그녀의 배우로서의 노련함은 이런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서 탁월하리만치 노련한 배우라는 평을 받은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데뷔 초기부터 이어져 온 그녀의 특징이다. 그녀의 배우로서의 노련함은 극중 인물, 자신이 맡은 역의 형상화에서 관객을 설득해내는 힘이 아주 세차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나이는 물리적인 대상일 뿐이죠. 고맙게도 난 나이 먹는 것에 관한 공포가 없어요. 공연이 있을 땐 힘들고 바쁜 채로도 할 일을 하는데, 공연이 없을 땐 한없이 늘어져서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거울 보기가 겁날 정도로 내가 미워지는 순간이죠.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휴식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나는 잠자리가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잠에 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천성이죠. 눈 감았다 하면 자니까!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지만 난 그렇지도 않아요. 신경이 너무 무딘 탓일 수도 있겠죠.”

그녀는 무대 위에서 항상 완벽한 인물을 창조해 낸다. 그것도 아주 사실적인 외양의 철저함과 그럴싸한 성격의 깊이를 만들어내면서 관객이 그 인물이 그러리라는 상상을 이끌어낸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



러한 인물들의 사실성이나 현장감은 일상이라거나 천연덕스러움, 자연스러움 같은 평범한 표현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그녀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일상을 얻어내고 자연스러움을 과시해왔다. 관객에게 그 인물의 사실적인 표현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웅변적으로 설득을 하는 연기다.

무대 위의 배우는 아플 자격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당히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너무도 강한 목소리의 개성은 그녀의 배역 소화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를 세련되게 닦아내고 중폭과 가감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자신의 강점으로 길러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배우로서 상식적인 이상형이라 말할 수 없는 얼굴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무대 위에서 보이는 얼굴, 관객이 극중 인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얼굴로 만들어 내며 믿음이가는 연기라는 평을 얻어냈다.

1993년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내 사랑 히로시마>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녀에게 좋은 연기에 대한 찬사는 많았지만 이런 표현은 그때까지 낯선 것이었다. 그녀는 이런 평에 대해 재미있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도 유능한 배우라면 어떤 인물, 그것이 아름다움이 요구되는 역이라면 아름답게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자부심은 그 후 많은 무대에서 드러난 그녀 연기의 또 하나의 측면이 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주인공을 만들어냈고 아름다운 여자로서의 자신을 가꾸어냈다.

그녀는 출연했던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장기공연을 했던 작품들에 특별한 애정이 남아있다. <대머리 여가수> 200회,

아름답게 변신할 수 있는
배우 박정자



〈위기의 여자〉 250회, 〈나잇, 마더〉 150회, 〈엄마는 오십에 바 다를 발견했다〉 350회, 〈신의 아그네스〉 250회 등등 공연을 하며 두 계절을 넘기거나 1년 내내 극장에서 살게 한 이 작품의 배역들이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와 같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부터 관객들이 몰린다 싶으면 드디어 장기공연이 결정되고 배우는 엄청난 충만감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8개월, 1년으로 이어지는 긴 레이스 동안 배우는 쉴 수도 아플 수도 없는 일종의 신들림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극장밖의 삶은 거의 의미가 없고 분장실과 무대가 삶의 본거지가 된다. 그렇게 뒀가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자신도 믿기 어려운 장기공연을 치르고 나면 그 끝에는 엄청난 공허감이 몰려든다. 마치 몸의 기가 다 빠져나가서 다시는 새로운 공연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탈진상태에 이르게 된다.

“1995년 〈테레사의 꿈〉을 공연할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극장에 온 날, 대본도 꼼꼼하게 살피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중간쯤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대사를 잃어버렸다기보다 그 순간 뭔가가 얼어버린 거였죠. 순간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연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으니까요. 몇 년 후 〈그 여자 역적어멈〉의 일본 공연 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공연 직전에 먹은 감기약 때문이었는지 도무지 대사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모노드라마였기 때문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절망감은 지금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신의 아그네스〉 때는 교통사고로 대본에도 없는 목발을 짚고 무대에 서야 했었고, 오십견이 왔을 때도 심한 육체적 위기감을 느끼며 무대에 서야 했어요. 배우는 정말 건강해야 해요. 공연이 시작되면 배우는 어떤 사고든 병이든 간에 아플 자격이 없어지니까요.”

그녀에게서 나무냄새가 난다

그녀는 하나의 극중 인물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인물의 머리모양을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머리 모양을 하고 연습실과 극장을 오가며 새 인물과 섞여 산다는 것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다는 옛말이 있다. 여배우 박정자의 젊음은 그런 옛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여러 번의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녀가 들려주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녀는 젊게 사는 여자가기 위해서는 물론, 연극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이기 위해서 항상 연애감정 속에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의 말을 꽤 여러 번 했다. 사람을 좋아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 감성적으로 메마르지 않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람의 건강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감성'이다. 비록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감성은 자신의 영혼에 작은 정원이 되어준다. 연극배우 박정자는 그 정원을 정성스레 가꾸며 주어진 환경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일 수 있다. 칠십, 고희(古稀)를 넘기고도 여전히 아름답고 건강한 배우 박정자, 그녀의 정원이 얼마나 더 깊고 푸르러지는지 분명 지켜봐야 할 일이다. ㉞